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93年度 第1次 理事會및 支部長 連席會議 開催

協會는 지난 2月26日 今年度 第1次 理事會및 支部長連席會議를 召集코 第1次 定期總會를 爲한 준비작업및 諸上程案件을 심의 마련한바 있다.

定總日時 3月31日로 確定코
2억4천만원線 豫算編成案 마련

◇理事會를 마치고.

協會創立 24年次 定期總會를 對備하여 執行部에서 마련한 諸般上程案件을 審議補完코저 지난 2월26일 任員및支部長 合同會議를 가진바 있다.

이날會議는 理事겸직이 없는 支部長들이 全員參席하여 中央方針의 下部組織 전달目的을 이행코저하는 진지한 모습들이 엿보였다. 會議벽두 宋會長은 그의 人事말에서 92年度의 산하조직 整備作業및 계약재배 확대실시에 對한 任員및 支部長들의 노고를 致賀하고 德分으로 現在 수확및 수매사업이 豫定대로 進行中에 있으며 이사업이 所期의 成果를 얻는데 별하자가 없을 것으로 믿기때문에 今年度에는 보다 많은 평수와 품종을 늘려 계약재배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할 것임으로 배전의 협력을 당부하는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現代의 약초재배는 在來式 경작을 지양하고 원가절감을 염두한 野山地기계화 집단영농방씩을 조기 파급시키는데 注力하지 않으면 國際경쟁력에 對處해 나가기 어려울 것임으로 모든 傘下任職員들은 成功的栽培事例 발굴과 敎育전파에 각별한 關心과 勞力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當付하였다.

이어 一般行政案件 심의에 들어가 定總日時를 3月31日(수)午後 2時로 定하고 各級共販長을 定總 2/3以上의 찬성 通過를 전제로 하여 定款上 分事務長級으로 편입시켜 總會代議員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議案을 잠정合意하고 이번 定總에 上程키로 하였다. 그리고 本會主기능과 時代的 부응을 爲한 生藥研究委員會 구성및 斯界전문學者 5名을 영입하는 原案을 議異없이 인준하였다.

본안인 93年度 事業計劃案및 豫算編成案은 시간상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관說明后 검토와질의를 마치고 표결에 부친결과 議異없이 원안대로 通過하였다. 92年度 事業實績과 豫算決算報告는 慣例대로 執行部와 監事에게 委任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1억4천7백여만원의 事務室예산과 9천1백여만원의 共販場 예산, 都合 2억4천만원 규모의 今年度豫算안이 確定되어 總會의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今年度豫算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복지향上에 비중을 두어 최저生活보장선에 가깝도록하는 20%의 임금인상에 있다고 볼수있다.…

이날 마련한 93年度 主要사업계획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금년도 基本사업方針은 8개項目으로 설정하였다.

①시·도지부별로 선별생산지도를 30대품목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계약재배 품목확대에 따른 기술지도 철저로 생산회원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계약재배 품목확대: 삼도시호, 황기, 당귀, 작약등 4개품목 확정광고를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어민신문에 이미 게제한바 있음)

③생약연구 위원회주기능 발전에 힘쓴다.

④계층출하 실적증대를 위한 공판장 운영을 활성화 한다.

⑤우량종자, 종묘, 종근의 선별확보와 공급에

〈2면에 계속〉

連載 韓方순례 <38>

〈續〉

2、 등허리의 S자형(沈度)으로 내장의 강약이 판명된다.

옛부터 체내의 기능은 체형을 통해 즉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 등허리의 S자형 판단법이다.

그러므로 전술한대로 「자세가 나쁘다」고 주의를 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의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내장의 장애 가능성에 대한 주의인 것이다.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건강법인 호흡법이나 맥합법(脈合法) 또는 도인법은 이미 자세가 나쁜 상태에서라면 그 효과가 일상의 행동을 통해 윤활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세가 잡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공념불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잡는 기본수칙부터 반복 수련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3천년을 거쳐 내려오는 동양의 지혜이며 구체적으로 선도(仙道)의 수련법 속에 달마선사의 무술속에 불교의 선도속에 그리고 중국의 쿵후나 한국의 태권도 등의 무술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반 동양인의 체형은 이런 기본바탕에서 너무나 멀리 유리된 감이 있다.

심지어 젊은 학생층에는 어쨌든 움츠러야만 어떤 야성적인 힘을 과시하는 듯한 감을 주는 것으로 여겼든 유행마저 있었으니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가정에서부터 잡아주지 못한데 보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이런 상태에서 내장의 질환자가 격증하고 불쾌증상에 시달리며 정신적 긴장이 해이해져서 시국관마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보겠다.

등이 굽어지고 허리마저 굽어지는 것은 앞가슴과 복부에도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앞가슴과 복부의 요결(要決)은 단전에 있으며 등허리의 S자형이 되는 요결은 삼관(三關)에 있다고 일러왔다.

등허리의 S자형, 즉 머리의 뒤통수 부분에 있는 옥침(玉枕)이라는 경혈로부터 목 뒤부분을 연결하여 등을 지나 명문혈(命門穴)이 있는 허리를 통해 장강(長强)이란 엉덩이 부위에 있는 경혈에서 끝나는 선이 선명하게 S자형을 나타내주는 체형의 사람은 호흡력이나 근육의 수축, 그리고 내장의 활력이 강하다.

등이 고양이 등처럼 굽어졌는가 허리가 앞으로 기운 사람은 S자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도 내장이 약한 것을 즉시 드러내는 것이다.

慶 第14代 金泳三 大統領 就任 祝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장 송경태
수석부회장 이종용
부회장 임연확
〃 황인구
〃 황조연
이사 박만종
〃 배명철
〃 남정룡
〃 이옥용
〃 문대규
〃 민종권
〃 박재문
〃 신영달
〃 서종활
〃 김창한
〃 김동균
〃 박재운
〃 유진걸
〃 정형모
〃 김종근
〃 이문섭
〃 강삼석
〃 함영완
〃 김용한
〃 이승훈
감사 허영
〃 최맹호

1993년 3월 20일